

01 교회소식

사랑의 공간에서 자라는 꿈나무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학생들의 이야기.

02 생명의 말씀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심고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으면 누르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다.

03 기획특집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본다.

04 간증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권능의 기도로 간질성 폐렴을 치료받은 장덕분 권사와 유산의 위기에서 보호받은 우크라이나 나탈리아 폴리슈크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814호 2017년 11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 참된 가치를 깨달아 새로워지는 만민의 학생들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삶 속에 변화와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절로 미소 짓게 한다.

컴퓨터 게임과 세상 오락을 끊고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학교생활에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아가는 등 주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만민의 학생들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그동안 학생들의 마음과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 장학금, 구제, 문화상품권, 학원비 지원 등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기도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을 산상기도처로 초대해 천국을 느끼도록 해 주었다. 이에 마음에 천국 소망과 목자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학생들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버려져 삶이 변화되는 체험

을 하고 있다. 트럼본을 전공하는 임승호 형제(고1)는 “당회장님의 정기적인 후원으로 경기예수고에 합격할 수 있었고, 올해는 장학금까지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은 닛시오케스트라 준 단원이 되어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이재광 형제(고2)는 “기도처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뒤 게임이나 이성을 생각하기보다 찬양, 예배, 기도가 즐거워져 이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기도처 고등부 배드민턴 대회에서 MVP를 수상한 최수연 자매(고2)는 “기도처에 다녀온 후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기도할 때 당회장님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도 흘리며 중심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은 작년 봄, 기도처를 처음 방문한 이후 본격적인 변화의 물결을 탔다.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같은 기간 진

행된 학생주일학교 동계수련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은혜의 흐름에 동승하게 되었다. 김영인 형제(고3)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메마른 신앙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니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기 위해 5일 금식도 하고, 요즘엔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21일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학생주일학교에서는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며 말씀암송팀도 구성해 교회 말씀퀴즈대회 본선에도 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일마다 교장 김창민 전도사가 인도하는 학년별 성령충만기도회와 지도교사·부장·교사들의 헌신으로 학생들은 더욱 충만해져 가고 있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질병을 치료받아 변화되는 학생들도 많다. 고등부 연합부회장 김민중 형제(고3)는 “가슴을 압축기로 누르듯이 숨을 잘 쉴 수 없어 검사해 보니, 3명 중 1명은 급사한다는 ‘급성 심근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받고 난 뒤 목자의

권능이 있으니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간증했다.

한편, 학생들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를 주역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를 듣고 공부를 더욱 잘하게 되고, 가정형편상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목사의 배려로 운영되는 ‘드림스쿨’을 통해 영어, 수학, 정보처리,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배우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학습모범상을 받아 분이 되고 있는 고등부 연합회장 백지현 자매(고2)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전에는 부모님 따라 교회에 왔던 학생들이 이제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스스로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새 예루살렘!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마음에 참된 소망과 사랑을 채워주셔서 참된 가치를 향해 전진하게 하신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11)

#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에 감사함으로 드리길 즐거웠고,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 시간과 물질, 가족, 제 생명까지도 중심에서 기뻐하며 드러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항상 누르고 흔들여 넘치는 축복을 주셨지요.

혹여 여러분이 충성과 기도, 물질 등을 심는 행함 속에 감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 힘들게 살아 왔거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의 향을 받으시므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심었어도 감사함으로 심는 것과 힘들게 억지로 심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지요.

마음의 향에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다르니 응답과 열매가 다르고, 천국에서도 처소와 영광의 상급도 다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향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 2.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나려면 일정 기간이 있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심고 하루, 이를 지난 뒤에 ‘왜 싹이 나지 않지?’ 하며 과해쳐 본다면 씨를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뿐 아니라 씨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 데 필요한 시간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금방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했지요. 어떤 사람은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나 지난 100세가 되어서였지요. 야곱 역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위해 20년간이나 외삼촌 밑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고, 모세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사명을 받았습니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열매가 안 나온다고 초조해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든가, 입술로 험어 버리는 말을 한다면 이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에 생각을 동원해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니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되지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며 인도하도록 기다림도 필요한 것인데 내가 먼저 나서서 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답답한 것 같아도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때를 기다려야 하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서 내 생각대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업터를 놓고 축복받고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크기에 따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길요.

이처럼 주 안에서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많은 상급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3.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이방에 널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죄인 중의 죄수’,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도 항상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배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따라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이다.”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보람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심으면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 기도와 전도 등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응답과 축복, 건강과 지혜와 영광을 얻으며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심어 이 땅의 삶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날에 기뻐하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심고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으면 누르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감사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직분자라는 의무감 속에 충성하면서 물질을 심은 뒤 ‘심었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시지?’ 하며 불평한다면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의 증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향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을 때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 항상 최선을 다해 드러 왔고,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지요. 생활이 어려운 초신자 때도 하나님 앞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면  
이 세상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으며  
누구라도 진리로 변화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보자.

##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을 벗어 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서로 간에도 하나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하신 대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띠, 성

령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각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의견들로 인해 마음까지 나뉘어서는 안 된다(마 12:25).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화평을 깨뜨린다면 마음이 나뉘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의견을 낼 때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옳음을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진리 안에서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한 마음이 되려면, 설령 내 의견이 더 좋고 옳게 여겨진다 해도 상대방에게 맞춰 줄 수 있어야 하며, 내 믿음이 더 좋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좇아 두루 은혜를 끼치고, 상대가 악을 행한다 해도 감정을 품지 않으며,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주의 일을 이룰 때 주님 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 주의 일에 책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하신 대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책임감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짐을 나눠지고 책임진다는 것은 그를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다.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다 같이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

되거나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면 열심히 동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처럼 지켜보기만 한다. 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없어도 먼저 모임에 와서 준비하고 도울 일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책망을 받으면 직접 담당할 일이 아니어도 민망해하며 애용함으로 스스로 회개하며 금식하는가 하면, 주의 종도 아니고 직분이 없어도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심방하며 금식하고 철야하


는 사람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양 떼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책임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 안에서 모든 일을 대할 때 ‘주의 일이 곧 나의 일이며 내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 마음에 선을 이뤄야 한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주의 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려면 마음이 선해야 온전히 이를 수 있다. 선한 마음이라야 기꺼이 자신을 굽히고 희생하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좇아 하나 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것도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의 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한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재앙이 곳곳에 일어날 것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걸쳐 점점 죄악과 재앙들이 더해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깨달을 수 없

고, 마지막 때의 징조도 깨달을 수 없다. 소돔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나 노아의 홍수 때도 심판이 다가왔음을 경고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로마서 13장 11~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라”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내가 어찌하면 더 선한 마음을 이룰까’, ‘어찌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신속히 마음의 성결을 이뤄야 한다. 데살로니기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하신 말씀을 명심해 깨어 기도하며 마음에 선을 이뤄 주님 뜻을 준비를 속히 마침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계 16:15, 22:14).

<p><b>주요 프로그램 안내</b> 11월19일~ 11월25일</p>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님의 뜻 1</li> <li>• 믿음</li> <li>• 육체의 결여 9-10</li> <li>• 선 11-15</li> <li>• 죄의 뿌리와 성결 2</li> <li>• 마음발을 개간하자 1-3</li> <li>• 요한일서 강해 9-15</li> <li>• 요한계시록 강해 94-102</li> </ul>	<p><b>GCN TV 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1(이수진 목사)</li> <li>• 내 영에는 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이미영 목사)</li> <li>• 자기 발견 4(이미경 목사)</li> <li>• 영의 세계 72(이희선 목사)</li> <li>• 감사(신동초 목사)</li> <li>• 시내산 언약(정구영 목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능 스페셜 3</li> <li>• 모두 드려요 18</li> <li>• 옛날 옛적에(시즈2) 7</li> <li>• 내 마음의 찬양 37</li> <li>•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9</li> <li>•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2</li> <li>• 마지막 때 3</li> <li>• 창조와 과학 13</li> </ul>	<p><b>해외성회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상 6</li> <li>• 러시아 연합대회 3</li> <li>• 믿음으로 걸어온 길 9</li> </ul> <p>전국 어디서나 <b>alleg tv 882번</b>   세계 어디서나 <b>RokuTV</b></p>
--	--	---	---	--



## “간질성 폐렴으로 죽어가던 제가 목자의 기도로 소생했어요!”

지난 9월 13일(수), 호흡이 가쁘고 기운이 없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별일 아니니 두 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여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단 몇 걸음도 땀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차고, 양치질을 하려면 몇 번씩 쉬어야 할 만큼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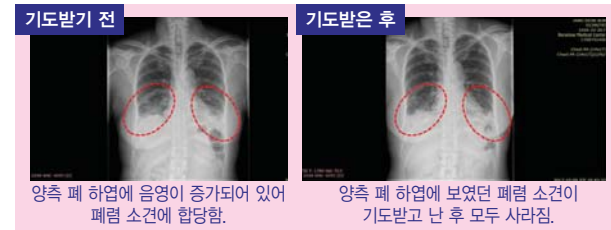
9월 27일(수), 다시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심각한 진 제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며 자세히 검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빈 병실이 없어 다음날 입원했고, 이후 혈액 검사, CT촬영, 기관지 내시경, 심전도 등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켜보는 의료진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야 저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29일(금) 밤, 드디어 ‘간질성 폐렴’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증상이 심각한 상태였지만 이를 후면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산기도 중에 내려오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뵙고 기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

다. 다음날, 교구장님이 오셔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 가슴을 칼로 에는 듯한 통증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호흡이 가빠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 있지 않았지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하면서 당회장님을 뵙 수 있다는 소망으로 견뎌왔습니다.



장덕분 권사 (62세, 2대대 17교구)



양측 폐 하엽에 음영이 증가되어 있어 폐렴 소견에 합당함.

양측 폐 하엽에 보였던 폐렴 소견이 기도받고 난 후 모두 사라짐.

10월 1일(주일) 아침, 의료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대예배 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 안에 들어서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배 후 당회장님을 뵙고 기도받는 순간, 가슴이 후끈

후끈했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과 함께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됐구나!’ 싶었지요.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서 주차장까지 휠체어 없이 걸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주차장에서 내려 걸어서 병실에 들어갔으며, 사람들과 한동안 대화도 나눌 수 있었지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순간에 몸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녹음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당회장님 설교와 만민찬양을 들으며 추석 연휴를 지내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인도로 귀한 제단을 만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주일), 대예배를 드리던 제 마음에 ‘이제 다 나왔다!’는 확신과 함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쁨이 임하니 단 앞에 나가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돌아간 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는 퇴원해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음날인 10월 9일부터 시작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첫째 날부터 통회자복의 은혜를 제게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에 갈 때마다 몸에 새 힘이 주어지며 신속히 회복되니 지금은 예전처럼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모든 삶 속에 첫사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주 안에서 저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으로 유산의 위기에서 보호받았습니다”

2008년 TBN러시아(러시아어 기독교방송)를 통해 처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접한 저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송이꽃 같은 생명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더 듣고 싶어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찾아 들어가니 8개 언어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러시아어도 있었지요. 저는 당회장님의 설교들을 듣고 생방송으로 정기에 배에 동참해 오다가 2011년 10월에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 모두 등록해 만민의 양 떼가 되었지요.

그러던 2013년, 저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한 기쁨도 잠시, 하혈을 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태반 위치가 너무 낮아 조금만 움직여도 위험하다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지요.

유산될 확률도 아주 높아 임신 기간 내내 누워 지내야 한다며 의사는 입원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자연분만이 심히 어려우니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동안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많이 보아왔기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자 만민중앙교회로 기도 요청 서신을 보냈습니다.

2013년 11월, 정기에배 시간에 우크라이나

에서 당회장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로 확인한 결과, 태반의 위치가 정상범위로 올라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 2월 17일, 저는 마침내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GCN방송을 통해 만민의 한 가족임을 느끼며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처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성결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주 안에서 생명의 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탈리아 플리슈코 성도 (44세, 우크라이나)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원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해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